

기저촌 활동 일지

기저촌 활동 일지

기저촌 활동 일지

활동지역			
활동기간			
기활동대 이름			
기활동대원 이름			

4기 **서울지역** **여**대생 **대표자** **협의회** **기**지촌 **활동** **추진**위원회

기지촌의 조국

척박한 나라일수록
몸으로 때울 일이 많으니
半島같은 나무에서 가랑잎때 같은 여자들
기지촌 마당으로 가랑이 젖긴 채 떨어져 쌓이는 소리 듣는가
분꽃이나 채송화마냥 여위고 조그만
허리로 군화도 채 안벗은 일본군졸들을
하루에 스무명도 받아야 했다던 정신대
지금은 식민지도 아닌데 전쟁중도 아닌데

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며
통일의 역군 양치를 위한 길이
곧 애국이고 돈도 베풀는 길이라며
신채발부, 부모님이 주신 밀편을 쓰니 쉽기도 쉬운 일이라며
살리고 비등거리는 꽃잎다리를 이 곳 마당에 뉘엿뉘엿하는
잘먹고 잘입는 살쥔 동포야

우리들의 조국을 묻지마세요
분꽃씨처럼 까맣게 오그라든 기지촌 여자들의 국적은 분노와 그리움.
분노를 조국으로 한 이들이 어디 우리뿐이겠어요
반도나무기둥에서 머지않아 구실 좋은 외군, 총칼들 물러지고
우리들 조국이 깨끗 일듯 활활 타오르겠죠.
그 땐 과거 흠 삼지않는 원산땅이나 해남쯤에 가
정갈한 조국 덕보며 살고파요.